

형용사구 구문연구

한 재 현*

목 차

- I. 보편적인 의미상의 유형
- II. 영어의 형용사구 구문
- III. 한국어의 형용사구 구문
- IV. 결 론

이 연구는 형용사구 구문(Adjective Phrase Structure)이 문장중에서 하는 기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한국어의 형용사구 구문의 기본구조(base structure)를 GPSG(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의 틀(frame)안에서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변형생성문법에서 형용사 전치(adjective preposing) 변형을 거쳐 도출했던 구문을 구절구조규칙으로 직접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의 NP앞에 오는 형용사구는 일종의 관계절로 가정하고 이 가설의 타당성을 논증하겠다.

연구대상의 어휘가 소수에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설에서 주장한 구조에 반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도하에서 많은 분야의 자료를 종합하겠다.

I. 보편적인 의미상의 유형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구절구조만을 중요시하던 경향이 점차 자질(features)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 Chomsky는 기본형태를 N, A, V라는 본원적범주(primitive categories)로 설정하고 있다. 또 N, V, A 및 P의 어휘범주의 차이를 +V 및 +N이라는 통사적 자질(syntactic features)로 구별하고 있다.

* 人文大學 英語英文學科 教授

Dixon(1977)은 단어의 품사분류가 모든 자연언어에서 다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중요한 품사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가 많이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와 같은 형용사가 없는 언어에서는 자동사(intransitive verbs)가 형용사적 개념을 표현하고, Housa 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명사나 동사를 통해서 형용사적 개념을 표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모든 언어가 다 중요한 품사로 형용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 형용사로 소수의 어휘를 가진 언어로는 Igbo의 경우 단지 8단어가 4개의 반대쌍을 이루고 있고, 또 어떤 언어의 경우 12개, 30개 등 소수의 형용사만이 나타난다고 한다.

Dixon(1977: 24 ~ 29)은 어휘항목(lexical item)의 통사적 속성(syntactic properties)이 의미론적 기술(semantic description)에서 예상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의미론적인 유형(semantic types)과 품사(parts of speech)를 기술하고 있다. 주요 품사가 언어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론적 유형이 서로 다른 언어간의 서로 다른 품사와 연관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의미 유형(semantic types)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MOTION(go), AFFECT(hit, cut), GIVING(give, donate, lend), CORPOREAL(laugh, sneeze), OBJECTS(stone, tree), KIN(uncle, son), DIMENSION(large, deep), COLOUR(black, white, red), VALUE(good, bad)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에 MOTION, AFFECT, GIVING, CORPOREAL 등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동사라는 주요품사로 분류하고, OBJECTS, KIN 등은 명사라는 주요품사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예외도 있어서 KIN이 AFFECT와 MOTION과 한 집단이 되어 동사로 분류되는 언어로 Tuma가 있다.

영어나 Dyrbal과 같은 언어에서는 형용사류가 DIMENSION, COLOUR, VALUE 및 4~5개의 다른 유형을 포함한다. 형용사가 없거나 소수 밖에 없는 언어에서는 형용사 유형이 다른 품사로 분산된다.

의미상 같은 유형이 언어에 따라 통사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면상의 통사상의 품사가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내면상의 의미유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사는 형용사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설정해야 그 언어의 구조를 밝히는데 적절한가에 있다.

II. 영어의 형용사구 구문

영어에서 형용사류의 중심적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소개하는 4가지의 속성이 있다

고 Huddleston(1984:299)은 설명한다. 이 중에 3 가지 속성은 기능상의 잠재력(functional potential)이며, 마지막 네번째는 수식과 굴절에 관한 것이다.

기능상의 잠재력 첫째는 형용사는 절구조의 서술보어로 기능을 하는 구절에서 머리어(head)로 등장하는바 이것은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predicative use)이다.

- (1) She seemed very *intelligent*.
- (2) They found it rather *tiresome*.

기능상의 잠재력 두번째로 형용사는 NP 구조에서 전머리어(pre-head) 수식어로 기능하는 구절에서 머리어로 나타나는데 이를 수식적 용법(attributive use)이라 칭한다.

- (3) It is a *careless* mistake
- (4) She is a very *intelligent* woman

기능상의 잠재력 세번째로 형용사는 NP 구조에서 후머리어(post-head) 수식어로 기능하는 구절에서 머리어로 오는데 이러한 경우를 후치적 용법(post-positive use)이라 한다. 이 용법은 앞서의 서술적 용법이나 수식적 용법보다 제약조건이 많아서 빈도수가 훨씬 낮다.

- (5) There are some people *careless* in there attitude to money.

네번째로 마지막 속성은 수식과 굴절현상이다. 원형적인(prototypical) 형용사는 등급을 매길 수 있어서 very, rather, quite, so, too, how 등과 같은 수식어를 취한다. 특히 등급을 매기는 형용사는 비교표현에서 굴절의 대조를 보이거나 more 와 most 로 표시되는 분석적인 비교급과 최상급의 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 (6) *very* careless, *rather* intelligent.
- (7) 절대형, 비교급, 최상급
 big bigger biggest
 careless more careless most careless

위의 4 가지 속성중의 어느 것도 형용사만의 특성은 아니지만, 형용사만이 이 넷을 다 갖고 있다. 명사의 경우는 처음 2개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으며, 세번째의 속성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네번째의 속성은 전혀 없다. 물론 마지막의 이 속성만으로 명사와 형용사를 전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영어의 형용사류를 아래에서 형용사의 유형, 형용사구의 구조, 형용사구의 종속요소의 순서로 논하겠다.

1. 형용사의 유형

Dixon(1977:31)은 단순형태소의 영어 형용사를 의미론, 통사론 및 형태론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일곱 유형(type)으로 분류하고 있다:

1. DIMENSION—big, large, little, small; long, short; wide, narrow; thick, fat, thin 등 소수.
2. PHYSICAL PROPERTY—hard, soft; heavy, light; rough, smooth; hot, cold; sweet, sour 등 다수.
3. COLOUR—black, white, red 등.
4. HUMAN PROPENSITY—jealous, happy, kind, clever, generous, gay, cruel, rude, proud, wicked 등 다수.
5. AGE—new, young, old.
6. VALUE—good, bad 및 소수
7. SPEED—fast, quick, slow 및 소수

보편적인 의미상의 유형을 아홉으로 앞장에서 예시했다. 그런데 영어의 형용사를 일곱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에 DIMENSION, COLOUR, VALUE 셋이 보편적인 의미유형과 일치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영어는 형용사가 개방류(open-class)의 품사임이 입증된다. 실제로 영어에는 형용사의 어휘가 풍부하다.

영어에서 어떤 유형의 형용사들은 상당수가 접두사나 접미사와 결합한다. DIMENSION, COLOUR, AGE 또는 SPEED 유형의 구성원들은 접사 un-을 취하지 못하지만 HUMAN PROPENSITY 형용사들은 un-을 취한다. 또 COLOUR 형용사들은 접미사 -ish를 취한다.

명사구에서 머리어 명사 앞에 세 종류의 수식구가 온다. 형용사 앞 수식어 (pre-adjectival modifiers), 형용사 (adjectives), 및 형용사뒤 수식어 (post-adjectival modifiers)로 세분된다. 형용사 앞 수식어 범주는 논리적 양화사 (logical qualifiers: all, some), 한정사 (determiner: the, this), 소유형 (possessives: my, John's), 최상급 (superlatives: best, cleverest), 서수 (ordinal numbers: fourth), 기수 (cardinal numbers: four) 등이다. 형용사 범주에는 앞에 나열한 DIMENSION 등 7가지 유형이다. 전치사 뒤 수식어 범주로는 기원/합성 (origin/composition: oatmeal dog food에서 oatmeal)과 목적/수혜 (purpose/beneficiary: oatmeal dog food에서 dog) 등이다.

위에 예시한 세범주의 순서는 예외없이 pre-adjectival modifiers, adjectives, post-adjectival modifiers의 분포이다.

2. 형용사의 구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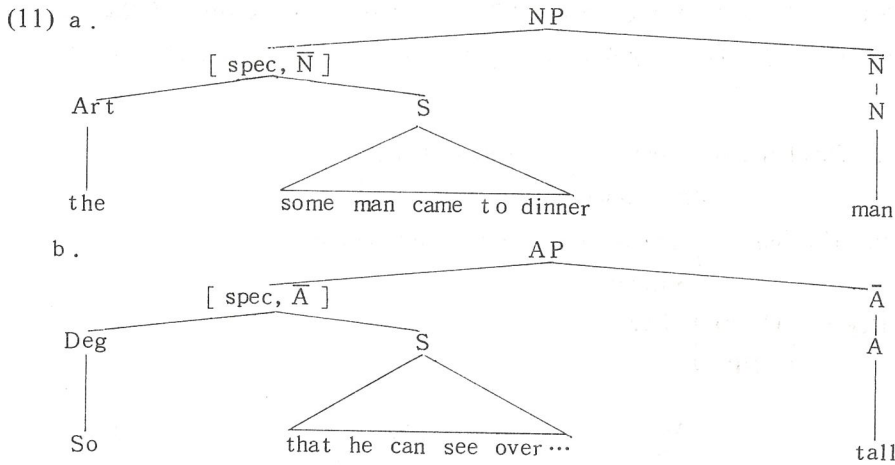
Bowers(1975)는 A와 V의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가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이 두 구조에는 뚜렷한 일반성을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 형용사구의 지정어(specifier)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8. a. Bill is *so* tall that he can see over everybody else's head.
- b. The fence was *too* high for me to jump over.

- c. That car is *more* expensive *than* the one I bought (is).
- (9) a. *Bill is *so* tall (for him) *to be* able to look over everyboby else's head.
- b. *The fence was *too* high *than* I could see over it.
- c. *That car is *more* expensive *than* the one I bought was.

정도 수식어 (degree modifier) so, too, more, as, enough, -er 등은 형용사 뒤에 오는 보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8)에서 a의 so는 that절과, b의 too는 for-to절과, c의 more는 than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9)에 있는 모든 문장이 비문이다. 그런데 (8)의 문장 구조는 관계절과 함께 오는 명사를 가진 구조와 비슷하다.

- (10) a. Art-N-S
- b. Deg-A-S



위 (11)의 a와 b에 S를 뒤로 이동하는 변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표면구조를 도출한다.

관계절과 보어를 가진 형용사절의 유사점의 또 하나는 다른 유형의 보어가 있을 때에 적용되는 외치변형이다.

- (12) a. I saw *a proof* of the theorem which caused a lot of controversy.
- b. *I saw a proof which caused a lot of controversy of the theorem.
- (13) a. I am *so sick* of parties that I'll never go to another one again.
- b. *I am so sick that I'll never go to another one again of parties.

(12)에서 머리어 명사 뒤에 PP가 있을 경우와 (13)에서 형용사 뒤에 PP가 있을 경우에 관계절과 보어가 뒤로 이동된 각 a는 정문이지만, 이동을 하지 않는 각 b는 비문인 점이 공통점이다.

형용사와 동사의 경우도 공통점이 있다. 형용사나 동사가 다 같이 문장 보어를 취할 수 있다.

- (14) a. Bill is afraid that people will think he is silly.
 b. Bill is afraid to leave the house.
 c. Bill is afraid of being thought a fool.

앞에서 (10)의 a와 b가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형용사구의 지정어 (specifier)의 내부구조를 고찰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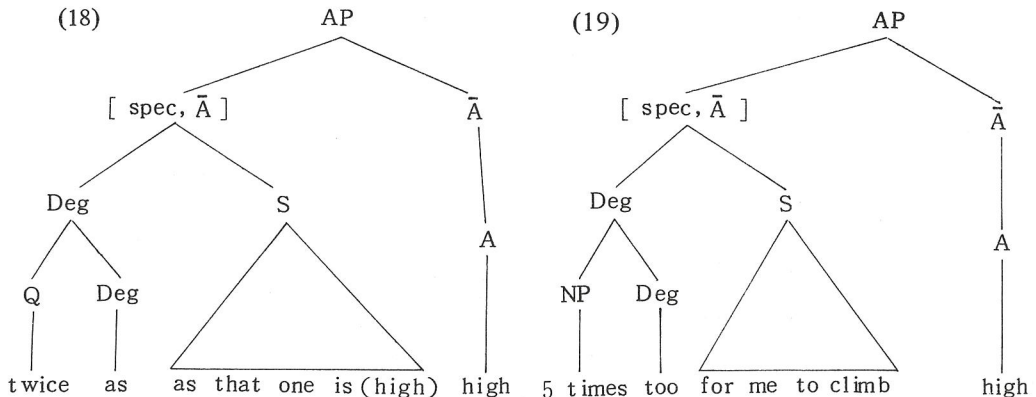
정도 수식어는 그와 연관이 있는 보문과 더불어 수의적이기 때문에 지정어의 PS규칙은 (15)와 같다.

- (15) [Spec, \bar{A}] \rightarrow (Deg(S))

그런데 Deg 요소는 도량명사구 (measure NP)나 양화사 범주 (category of Quantifier)에 의해 수식을 받으므로 다음 (16)과 같은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17)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 (16) a. This fence is $\left\{ \begin{array}{l} \text{twice} \\ \text{two times} \end{array} \right\}$ as high as that one (is).
 b. This fence is $\left\{ \begin{array}{l} \text{much} \\ \text{5 times} \end{array} \right\}$ too high for me to climb.

- (17) Deg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Quant} \\ \text{NP} \end{array} \right\}$ Deg



그러나 아래 (20)과 같은 문장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21)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 (20) This fence is much too much higher than that one for me to even consider climbing it.

(26) [Spec, \bar{X}] \rightarrow $\langle(Q)\rangle$ $\langle\langle\left\{\begin{smallmatrix} AP \\ NP \end{smallmatrix}\right\}\rangle$ art(S)
 cond: X = Adj, \langle Noun \rangle

생성문법론자들은 어떤 X(=N, V, A, V)도 기저에서 생성되는 일련의 보어를 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Hendrick(1978)는 형용사는 기저에 전치사나 문장의 보어를 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Hendrick의 형용사의 구절구조를 요약해 보겠다.

Chomsky(1957)와 Smith(1961)는 명사 앞의 형용사는 이동변형으로 인해 축약된 관계절에서 도출한다고 논증하고 있다. 그래서 (27c)는 (27)의 a와 b에서 도출된다.

- (27) a. The members who are available
 b. The members available
 c. The available members.

어떤 형용사들은 수식적 용법으로는 기능을 하지만 서술적 용법으로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 (28) a. *The reason that was $\left\{\begin{smallmatrix} possible \\ principal \end{smallmatrix}\right\}$ was that we were tired.
 b. *The reason $\left\{\begin{smallmatrix} possible \\ principal \end{smallmatrix}\right\}$ was that we were tired.
 c. The $\left\{\begin{smallmatrix} possible \\ principal \end{smallmatrix}\right\}$ reason was that we were tired.

위에 있는 possible과 principal은 수식적 용법으로 쓰이는 위치에만 오는 형용사다.

그러나 Emonds(1976)는 서술적 용법과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간에는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했다.

- (29) a. Students are the traditional revolutionaries in this country.
 b. Students are the revolutionaries in this country who are tradi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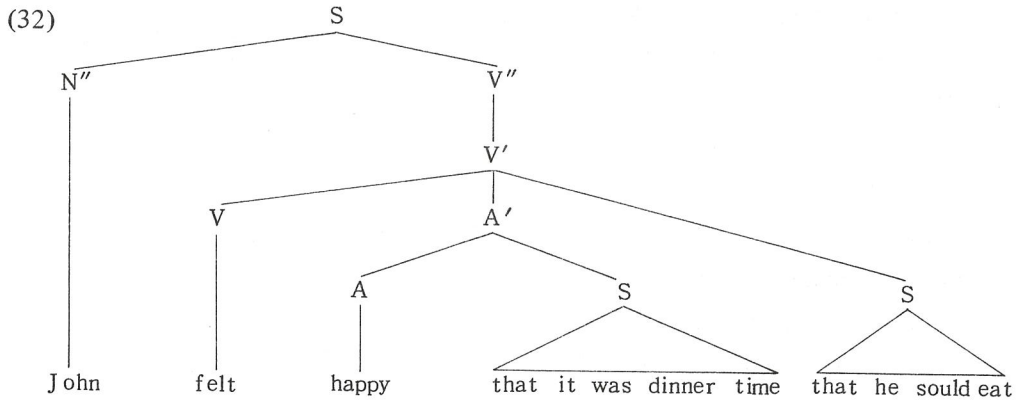
(29)의 a는 b와 의미가 다르다. 즉 traditional은 서술적으로나 수식적 용법으로 다 쓰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용법에 따라 의미가 서로 다른 문장이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계절 축약규칙도 있고, 명사 앞에서만 형용사를 생성하는 규칙도 있다고 보겠다.

보어의 분포를 보면 서술용법의 형용사 뒤에는 보어가 오지만, 수식용법의 형용사 뒤에만 보어가 오지않는 특성이 있다. (30)과 (31)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식용법 형용사 뒤에 보어가 오면 비문이다.

(30) *The unhappy at me child screamed.

(31) *The unhappy _____ child that we couldn't go out screamed.

현시점에서 적절한 또 하나의 분포상의 사실은 (32)와 같이 형용사 보어와 동사 보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는 없다.



(32)와 같은 구조를 기저구조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절구조 규칙이 필요하다.

$$(33) V' \rightarrow \dots V \dots \left\{ \begin{matrix} A'' \\ S \end{matrix} \right\} \dots$$

그러나 (33)으로 아래 (34)와 같은 예문을 설명할 수 없다.

- (34) a. It is doubtful that John will arrive by 9:00.
- b. That John will arrive by 9:00 is doubtful.

Emonds(1976)의 구조보존의 외치분석에서는 위 문장은 주어와 동사의 보어간의 대치현상이지, 주어와 형용사의 보어간의 대치현상이 아니다.

또 하나의 분포된 사실을 보면 형용사의 머리어와 그 보어 사이에 부사구가 삽입되는 즉 형용사의 보어가 외치되는 현상이 있다.

- (35) The police were *satisfied* in the end that John was innocent.

- (36) *John became a defender in the end of Allende.

즉 (35)에서는 형용사의 보어가 외치된 것으로 문법성에 영향이 없지만, (36)에서는 형용사가 아닌 다른 품사 즉 명사의 보어가 외치된 것으로 비문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술형용사만이 보어를 취하는 규칙 (37)이 필요하다.

$$(37) \text{Spec, X} \rightarrow \left\{ \begin{matrix} Y-A \\ NP \end{matrix} \right\} \dots$$

따라서 형용사의 보어는 원래 A''와 동위교점(sister node)관계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A''와 동위교점관계에 있는 보어를 A''의 하위교점(daughter node)로 만드는 이동규칙이 있어야 WH-전치변형이 가능하여 (38)과 (39)를 설명할 수 있다.

- (38) How disappointed that he couldn't go was he?

(39) How unhappy with the bank was he?

(38)은 보어문장에, (39)는 P'에 이동규칙을 적용하는 (40)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40) SD: $U_1 - A - \left\{ \begin{matrix} S \\ P'' \end{matrix} \right\} - U_2$

SI: 1 - 2 - 3 - 4

SC: 1 - 2+3 - 4

(40)과 같은 규칙이 필요한 또 하나의 증거로 다음 예문을 보자.

(41) a. John is ready to go.

b. How ready to go is John?

c. How ready is John to go?

WH-전치변형에서 (b)문은 V'의 딸을 전부 이동한 결과이며 (c)문은 형용사만을 이동한 결과다. 서술형용사와 보어는 하나의 성분으로 또는 서로 다른 성분으로 적용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칙 (40)에도 문제가 있다. 첫번째 문제로 P'와 관련된 것이다.

(42) a. The people were upset because there was widespread corruption.

b. *How upset because there was widespread corruption were the people?

(43) a. I went to the store.

b. *To the store, I went.

(44) a. John hit Mary without realizing it.

b. Without realizing it, John hit Mary.

(42b)와 (43b)는 비문인데 (44b)는 좋은 문장이다. 왜 WH-전치에서 P''이 형용사와 함께 문두로 이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전치가 가능한 성분은 V'의 지배를 받지 않고 V''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43b)도 V'의 지배를 받는 성분이 전치되어 비문이다. 그러나 (44b)는 V''의 성분이 전치되었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다음 문장을 비교해 보자.

(45) a. John is happy doing that kind of work.

b. How happy doing that kind of work is John?

c. How happy is John doing that kind of work?

(46) Doing that kind of work John was unhappy,

위에서 *doing that kind of work*는 V'의 동위교점이나 하위교점 둘중 어느 하나로 생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45)와 (46)은 서로 다른 심층구조를 가졌다고 보겠다. 이들 사이에는 아주 섬세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45)에서 일(work)과 행복하게 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46)에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John이 불행하다는 내용인 것 같다.

이러한 설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래 (47)이다.

(47) *How irritated to us did John look?

위 문장이 비문인 이유로 Chomsky(1973)는 변형에다 조건을 설정했다. 즉 변형에 나오는 각 요인(factor)은 형태론적으로나 의미론적인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47)에서 how irritated to us는 의미론적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문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V'의 밖에 있는 성분만이 전치된다는 조건하에 아래 규칙으로 설명이 된다.

(48) Complement Formation (optional)

SD: U₁-U₂-A- $\left\{ \begin{matrix} P' \\ S \end{matrix} \right\}$ -U₃-U₄

SI: 1-2-3-4-5-6

SC: 1-2-3-+4-5-6

위의 (48)로 설명할 수 없는 문장이 (49)다.

(49) a. It is inconvenient that Gretel couldn't come.

b. *How inconvenient that Gretel couldn't come was it?

c. How inconvenient was it that Gretel couldn't come?

보어형성(Complement Formation)과 위치변형 중 순서가 필요하다. (49)에서 b는 위치변형을 먼저 적용하고 보어형성을 나중에 적용하여 비문이 되었고, c는 보어형성변형을 먼저 적용하여 정문이 되었다. 이 규칙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Williams(1972, Hendrick(1978)에서 재인용)는 가장 낮은 VP안에서 적용되는 변형이 주어와 관련된 변형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49)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48)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된다.

3. 형용사구 구조의 의존소

형용사구에 의존소(dependents)로 나타나는 요소를 보어(complements)와 수식어(modifiers)의 두 종류로 Huddleston(1984:305-311)은 구별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형용사구의 의존소로 보어를 검토해 보겠다. 형용사의 보어로 기능하는 구조는 PP와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이다. PP보어를 취하는 형용사는 의미상으로 볼 때 이항술어(two-place predicate)의 표현이다.

(50) Ed is fond of Kim.

위 (50)에서 fond는 Ed와 Kim이라는 두개의 논항(arguments)을 취한다. 이러한 의미적 속성외에 두가지 통사적 속성을 갖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51) a. *Ed is fond.

b. Ed is fond of Kim.

c. Ed is afraid (of the dark).

d. Ed is keen (on the idea).

e. Ed is sorry. (for the inconvenience).

통사적인 두가지 속성중의 하나는 머리어 형용사로 어떤 어휘가 출현하느냐에 따라 전치사구의 전치사 어휘가 결정된다. 위 (51b)에서 fond는 afraid와 대치될 수 있으나 keen 이나 sorry와는 대치될 수 없다.

통사적인 또 하나의 속성은 fond와 같은 예외적인 형용사는 보어를 필수적으로 취한다. 보어가 있는 (51b)는 정문이지만 보어가 없는 (51a)는 비문이다.

형용사의 보어로 기능하는 또 하나의 구조는 종속절이다. 종속절의 종류는 여러가지다.

(52) Ed was angry that he had gone.

(53) I am unsure whether she can do it.

(54) Ed was keen for me to see the manuscript.

(52)는 평서문 보어를, (53)은 의문문 보어를, (54)는 비유한형(non-finite) 보어를 취한 문장들이다. 특히 비유한형 보어는 머리어 형용사의 어휘에 따라 의미상 기능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55) Ed was *keen* to see the manuscript.

(56) Ed was *likely* to see the manuscript.

(55)의 형용사 Keen은 2항술어로서 “x was keen for x to see the manuscript, for x = Ed”의 뜻이다. 이와는 반대로 (56)의 형용사 likely는 1항술어로서 “That Ed would see the manuscript was likely”의 뜻이다.

다음에는 형용사구 의존소로 수식어의 기능을 살펴보겠다. 형용사구 구조의 의존소인 수식어(modifier)는 정상적으로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형용사(gradable adjectives)와 함께 온다. 이 수식어는 형용사의 앞에 오는 경우와 뒤에 오는 경우 두 종류가 있다.

형용사 앞에 오는 수식어는 형용사에 -ly를 첨가한, 즉 absolutely, competely, enormously등과 같은 부사와 how, quite, so, rather 등과 같이 소수의 부사들이다.

형용사 앞에 오는 또 하나의 부류는 한정사(determiners)인 the, this, much, any, all 등이다.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기능면에서 볼 때 이들은 부사다.

후머리어 수식어(post-lead modifiers)는 아래 예문과 같이 쓰인다.

(57) Ed was so tall *that* he could see over the wall.

(58) It was *more* useful *than* I had expected.

(59) It was *as long as* six feet.

(60) Ed was *too* sleepy *to* concentrate.

어떤 경우에는 후머리어 수식어는 전머리어 수식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57)에서

that 절은 so 와, (58)에서 than 절은 more 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so 나 that 가 없다면 후머리어 수식절도 따라서 없어야 정문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59)와 (60)에서는 as 와 as 가, too 와 to 가 각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정사절 즉 비한정절은 형용사구에서 보어도 되고 수식어도 된다.

- (61) a. He was anxious to be a minister. Complement
- b. He was young to be a minister. Modifier

첫째 구별은 (61)에서 의미상으로 볼 때 a의 보어는 형용사의 의미술어의 논항 (argument)에 대응되므로 “He wanted to be a minister”에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b의 수식어는 등급을 매기는 형용사는 정도를 명세화 한다. 즉 장관이 될 표준 나이에 비해 어리다는 뜻이다.

두번째로는 보어의 발생은 부정사 보어의 발생을 허용하는 형용사 머리어의 선택에 의존한다. 즉 (61a)에서 anxious 자리에 considerate, similar 등은 못온다. 그러나 수식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세번째로 보어와 수식어가 결합할 때 다음 예문에서처럼 수식어가 보어를 선행한다. He was too anxious to win to appreciate such niceties 가 그 예로서 이 때에 전머리어 수식어는 필수적으로 출현한다.

네번째의 차이는 b에서는 young 에 제일강세를, minister 에 제이강세를 주지만 a에서는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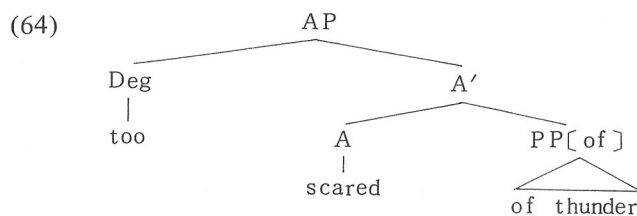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변형을 전제로 한 형용사구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모든 문장을 구절구조규칙으로 도출하는 GPSG의 틀안에서의 형용사구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Gazdar et al(1985: 109)는 주요 어휘범주(major lexical category)인 N,V,A,P의 보어를 검토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형용사구 구조를 검토해 보겠다. 정도수식어(degree modifier)인 how, so, too, more, less, as 등은 명사구의 한정사(determiners)와 비슷하다. 형용사구의 구절규칙은 대략 아래와 같다.

$$(62) A^2 \rightarrow (\langle \text{SUBCAT} \rangle, 23), H^1$$

$$(63) \text{Deg} = \langle \text{SUBCAT} \rangl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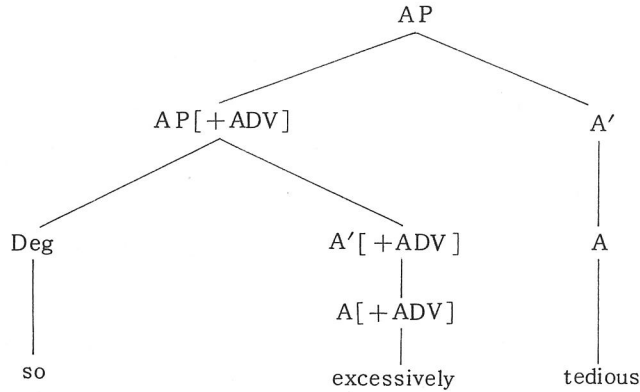
(62)와 (63)을 결합하면 아래 (64)와 같은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구조에 [+ADV]의 자질을 가진 구조와 더불어 AP를 확장하면 (65)와 같은 규칙이 된다.

(65) a. $AP \rightarrow (AP[+ADV]), H^1$

b.



형용사 뒤에 오는 보어의 하위범주는 대략 아래와 같다.

(66) a. $A' \rightarrow H, PP[about]$

b. angry about the decision

(67) a. $A'[AGR S] \rightarrow H, PP[to]$

b. apparent to us

(68) a. $A' \rightarrow H, S[FIN]$

b. afraid that it was too late

(69) a. $A' \rightarrow H, S[BSE]$

b. insistent that you be on time

(70) a. $A' \rightarrow H, VP[INF]$

b. likely to leave

(71) a. $A'D H, V^2 [INF, +NORM]$

b. eager (for us) to leave

위의 여섯가지 종류의 보어를 보면 처음 (66)과 (67)은 PP요, (68)~(71)의 네문장은 문장보어다. 결국 보어를 대별하면 PP와 절(c)의 두 종류다.

4. 총 합

제 1장에서 어떤 언어는 형용사가 없고, 또 어떤 언어는 있어도 몇개의 어휘만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영어에는 형용사가 주요어휘범주로서 어휘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형용사가 문장중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명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 2장 첫머리에 소개할 형용사의 네가지 기능 즉 서술보어의 머리어, NP구조의 전머리어 수식구의 머리어, NP구조의 후머리어 수식구의 머리어 및 정도를 매길 수 있는 성질이며 수식어로 정도 부사 very, more, most 등을 취하거나 그 어휘 자체가 bigger 처럼 굴절하기도 한다. 이 속성중에서 처음 두가지는 명사와 동일하며 세번째 속성은 약간 제약을 받지만 명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점이 많다.

\bar{A} 와 \bar{V} 의 내부구조도 같은 점이 있다. 동사가 문장 보어를 취할 수 있듯이 형용사도 앞에

문 (14)에서 보듯이 *that* 절, 비한정사절 및 동명사절을 보어로 취할 수 있다. 또 동사나 형용사가 모두 PP보어를 취하는 점이 동일하다.

Ⅲ . 한국어의 형용사구 구문

한국어의 주요어휘범주(major lexical category)에 형용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문장구조를 기술하는데 형용사가 있다고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지를 밝혀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의 기능을 검토하겠다.

1. 술부의 하위분류

술부를 구성하는 어휘를 보면 명사, 형용사 및 동사의 세종류로 대별된다.

(72) 영희가 학생이다.

(73) 나무잎이 푸르다.

(74) 철마가 달린다.

(72) ~ (74)의 밑줄친 어휘는 각각 명사, 형용사, 동사다. 즉 N, A 및 V가 다 같이 서술기능을 한다. 그런데 (73)에서 푸르다가 형용사로 분류된 것은 인구어(Indo-European Language)의 분류를 토대로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이와 같은 어휘를 동사로 분류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한 재현(1981:10-12)은 동사의 종류를 연계동사(copule verbs), 동작동사(action verbs) 및 기술동사(descriptive verbs)로 분류했다. 푸르다와 같은 전통문법에서의 형용사를 기술동사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또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보다 동작동사와 기술동사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가 타당하다면 서술용법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하여 어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즉 한국어에는 서술적 형용사의 어휘범주가 필요치 않고, 이를 동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런 가정이 타당성이 있는지가 문제다.

문장 중에서 형용사의 위치에 따라 서술적 용법과 수식적 용법(attributive use)로 구별할 수 있다. 서술적 용법의 경우는 기술동사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수식적 용법의 경우 전통적으로 형용사로 분류된 어휘의 설명이 이 연구의 주요과제이다.

2. 관계절의 구조

Bears(1982:14-15)는 공백(gaps)을 자질(features)로 가정하고 그 위치에 흔적 t를 설정하고 통사구조를 설명한다. 그 중 관계절 구조에서 공백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 (75) a. [S/NP^t VP]
 b. the man who [-saw me] left.
- (76) a. [VP/NP VP t]
 b. the man who I [saw -] left.

위 (75)~(76)의 a에서 범주표시로 되어 있는 사선 (slash) 다음에 오는 NP가 그 앞에 있는 S나 VP라는 상위범주 중에 공백으로 빠져 있다는 표시다.

Gazdar et al (1985:139)는 사선자질 (SLASH features)의 두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없어진 하위성분 (missing constituents)이 확실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흔적 (traces)이라고 알려진 음운상 영성분 (phonologically null constituents)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둘째로 없어진 하위성분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없어진 NP는 [SLASH NP]로 실현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는 대략 아래 (77)과 같으며, (78)과 같은 국부수형 (local tree)은 없다.

- | | |
|--|---|
| <p>(77) a. S/NP</p> <p style="padding-left: 40px;">NP</p> <p style="padding-left: 80px;">VP/NP</p> <p style="padding-left: 40px;">S/NP</p> <p style="padding-left: 80px;">NP/NP</p> <p style="padding-left: 80px;">VP/NP</p> | <p>b VP/NP</p> <p style="padding-left: 40px;">VP/NP</p> <p style="padding-left: 80px;">PP[+ADV]</p> <p style="padding-left: 40px;">VP/NP</p> <p style="padding-left: 40px;">VP/NP</p> <p style="padding-left: 80px;">PP[+ADV]/NP</p> |
| <p>(78) a. S</p> <p style="padding-left: 40px;">NP/NP</p> <p style="padding-left: 40px;">VP</p> <p style="padding-left: 40px;">S</p> <p style="padding-left: 80px;">NP</p> <p style="padding-left: 80px;">VP/NP</p> | <p>b. S/NP</p> <p style="padding-left: 40px;">NP</p> <p style="padding-left: 40px;">VP</p> <p style="padding-left: 40px;">N/NP</p> <p style="padding-left: 80px;">N</p> <p style="padding-left: 40px;">VP/PP</p> <p style="padding-left: 80px;">V</p> <p style="padding-left: 80px;">PP</p> |

(78)에서 S에는 사선 (SLASH) NP가 없는데도 하위범주에 NP/NP처럼 사선(SLASH) NP가 있을 수 없고, 또 상위 구조에 S/NP가 있는데 하위범주에 사선 (SLASH) 이 없이 NP와 VP만이 나타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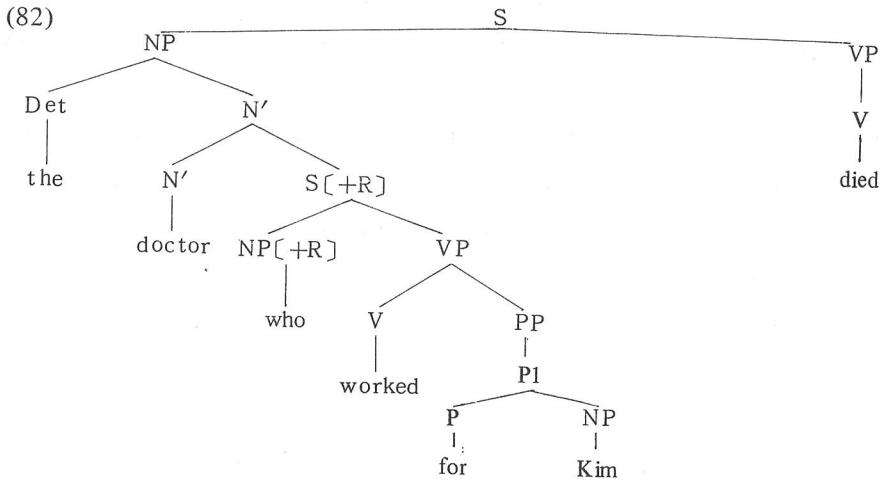
Gazdor et al(1985:155)는 관계질의 ID규칙을 아래 (79)로 설정했다.

- (79) $N' \rightarrow H, S[+R]$
- (80) a. $S \rightarrow X^2, H[-SUBJ]$
 b. $S \rightarrow X^2, H/X^2$

(80)의 규칙이 아래와 같은 국부수형을 허용한다.

- (81) a. S[+R]
 - NP[+R]
 - VP
- b. i. S[+R]
 - NP[+R]
 - S/NP
- ii. S[+R]
 - PP[+R]
 - S/PP
- iii. S[+R]
 - AP[+R]
 - S/NP

영어에서 관계절의 구조는 (81a)처럼 하위구조에 공백 성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 (81bi)처럼 NP가 없어진 경우와 (81bii)처럼 PP가 없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81biii)처럼 AP가 없어진 구조는 영어에 나타나지 않는다. (81a)의 구조를 수형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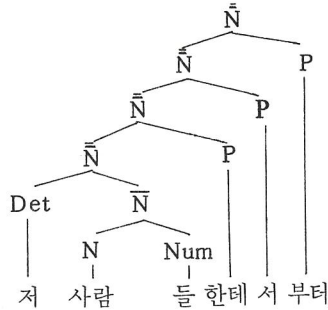
한국어의 관계절 구조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NP의 구조를 간략히 검토하겠다.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목적어, 시간, 장소 등을 나타내는 명사구와 맨 끝에 오는 동사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여러 종류의 명사구는 명사뒤에 오는 이른바 후치사의 기능에 따라 구별된다. 한 재현(1983: 51)이 설정한 이러한 명사구 구절 구조 규칙을 토대로 하여 구조 설명에 필요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83) a. $\bar{N} \rightarrow \bar{N} P$
- b. $\bar{N} \rightarrow \text{Det } \bar{N}$

C. $\bar{N} \rightarrow N \text{ Num}$

(84) a. 저 사람들 한테서부터

b.



명사구 중에 규칙 (83)으로 도출할 수 없는 것이 대등접속 명사구와 관계절을 포함하는 복합명사구이다. 복합명사구의 한 성분인 관계절이 명사구를 수식하는 것과 형용사가 명사구를 수식하는 것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수식 기능으로 비슷한 점이 있다.

(85) a. 예쁜 소녀

b. 얼굴이 예쁜 소녀

(85)에서 소녀를 수식하는 예쁜의 형태소는 a나 b가 다 같은데 a는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 b는 관계절의 서술부인 동사라고 분류되어온 전통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a와 b의 차이는 b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더 있을 뿐 나머지는 서로 달리 분석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안되는 것 같다.

이 연구에서는 (85a)와 같은 수식적 용법도 실제로는 관계절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가정을 한다. 관계절이 되려면 문장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 예쁜 한 단어만으로는 문장이라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공백자질을 활용하면 문장에서 도출된 구조로 가정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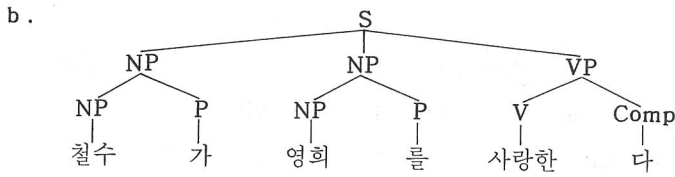
(86) 영화가 예쁘다.

(87) 예쁜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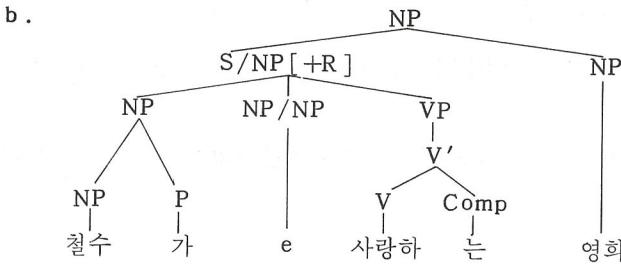
수식어인 예쁘다가 (86)에서는 서술적 용법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 뒤에 (87)에서는 수식적 용법으로 명사앞에 위치한 장소의 차이가 있고 또 (86)은 문장의 형태요, (87)은 명사구의 형태다. 이 두 문장의 의미적 동일성 관계도 흥미롭다.

위의 문장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예문을 들어 관계절 구조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영어에서 관계절이 있는 명사구의 규칙을 앞 (79)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 관계절이 공백(gap)을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구조를 (81a)에서 보았다. 공백자질로 한국어의 관계절 구조를 설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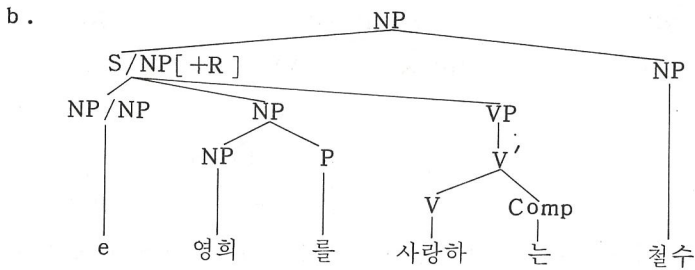
(88) a.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89) a. 철수가 사랑하는 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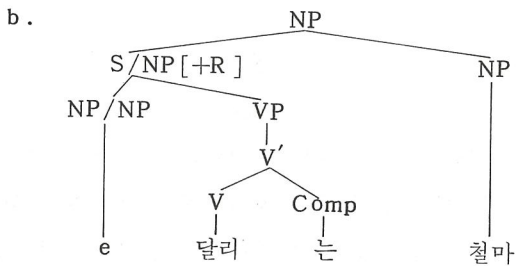


(90) a. 영희를 사랑하는 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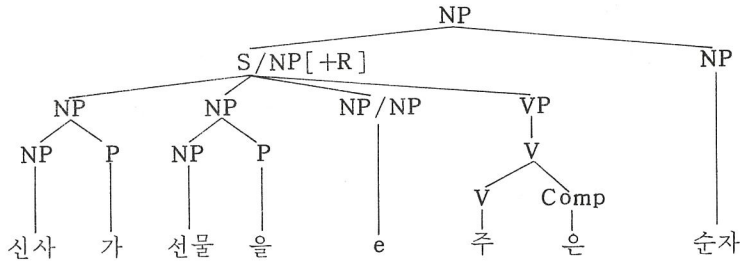
(89)는 목적어 NP가, (90)은 주어 NP가 비어있는 관계절을 가진 복합명사구다. 영어에는 (81a)에서 보았듯이 공백이 없는 관계절도 가능하지만, 한국어에는 공백범주가 없는 관계절을 찾을 수 없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소위 관계대명사라는 어휘가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관계절은 모두 하위공백범주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예를 몇개 더 소개한다.

(91) a. 달리는 철마



(92) a. 신사가 선물을 준 순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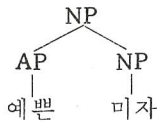


(91)은 동작동사를 취한 문장이고, (92)는 논항을 세개 취하는 동사의 문장으로서 여기서는 간접목적어가 공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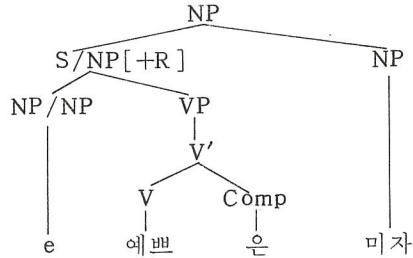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를 가진 NP의 구조를 아래에서 검토해 본다.

(93) a. 예쁜 미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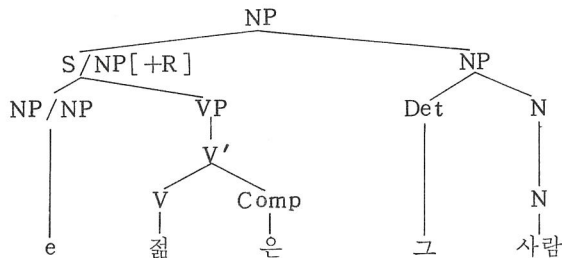
c.



(93a)의 구조는 b가 아니라 c라고 가정했었다. c라는 가정은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를 기술동사라는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 합치되며 일반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예문을 하나 더 소개한다.

(94) a. 젊은 그 사람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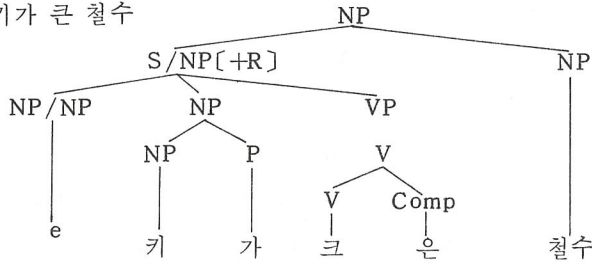


(94b)는 (91b)와 비슷한 구조로서 (91b)가 관계절이라면 (94b)를 관계절이라 분석해서는 안될 이유가 없다. 특히 (94)에는 관계절 다음에 오는 NP가 한정사와 N의 하위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그 젊은 사람”과 “젊은 그 사람”의 두 명사구가 다 가능하다. 이 두 구조를 다 같이 설명하려면 관계절을 포함하는 복합명사구로 도출하는 것이 편리하

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또하나의 증거로 다음 예문을 검토해 본다.

- (95) a. 철수가 키가 크다.
- b. 키가 큰 철수
- c.



(95)는 일반적으로 볼 때 주어가 두개 있는 문장이다. 즉 주어가 공범주로 되어 있는 관계절이 머리어인 NP (=철수)를 수식하는 구조가 (95c)다. 그러나 (95c)의 구조가 타당치 못한 증거를 보자. NP인 키를 관계절화 시킨 다음 구절 (96)은 비문이 된다.

- (96) * 철수가 큰 키

(96)이 비문인 것은 키가 크다의 키가 크다의 주어가 아니고 키가 크다 전체가 술부가 된다는 증거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 (97) a. 나무가 매우 뿌리가 깊다.
- b. 매우 뿌리가 깊은 나무
- c. * 나무가 매우 깊은 뿌리

(97a)의 주어 나무는 (b)에서처럼 관계절화가 가능하지만 뿌리는 (c)에서처럼 관계절화가 되지 않는다. 또 (a)에서 뿌리가 깊다 전체가 매우의 수식을 받으므로 술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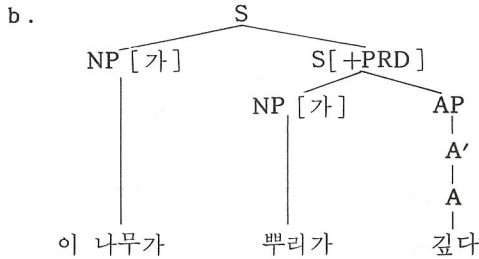
다음에는 이른바 목적어가 이중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98) a. 철수가 고양이를 꼬리를 잡았다.
- b. 철수가 꼬리를 잡은 고양이
- c. * 철수가 고양이를 잡은 꼬리

(98a)에서 고양이와 꼬리가 둘다 목적어라면 관계절화가 되어야 할텐데, (b)의 고양이는 관계절화가 되지만 (c)의 꼬리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도 꼬리를 잡았다 전체가 술부라고 볼 수 있겠다.

박병수(1987. 7.10, 한국어언어학회 발표)는 이중주어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9) a. 이 나무가 뿌리가 깊다.



(99b)에서 보면 뿌리가 깊다가 S이긴 하지만 [+PRD]의 자질을 취하여 술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 구조를 $\langle S [+PRD] \rangle (= TYP(VP) = \langle NP, S \rangle)$ 로 설명하고 있다. 즉 [+PRD]의 자질을 취한 구조로 설명한 것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

S가 NP가 S [+PRD]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S [+PRD]의 범주표시의 타당성 여하는 별문제로 보고 다만 키가 크다나 뿌리가 깊다를 술부로 보는 견해는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견해로 보인다.

이러한 증거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의 형용사는 기술동사의 어휘범주에 속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IV. 결 론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형용사를 주요어휘범주로 보느냐 아니면 동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를 놓고 설명을 했다.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 기술동사의 어휘범주에 포함시키고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는 관계절로 분류하여 형용사라는 별도의 어휘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보였다.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 인구어의 연계사(copula)와 같은 형태소를 취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의 시제인 경우 시제표시 형태소와 문장어미(sentence ending) 형태소가 첨가된다. 즉, 시제형태소가 첨가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장이라는 증거가 된다. 고로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는 원래가 관계절로서 그 구조 안에는 공백의 NP가 하나 있다. 구조를 기술할 때 공백자질을 설정하여 구절구조를 기술하면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는 관계절의 수식성분이 된다.

또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가 관계절이라는 증거는 소위 이중주어나 이중목적어의 문장이 NP를 수식할 때 알 수 있었다. 즉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의 구조는 공백자질을 가질 수 있지만 술부의 일부가 되는 NP는 그것이 후치사로 가를 취하건 를을 취하건 공백자질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관계절의 동사가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 어느 경우나 머리어 NP 앞

에 올 때는 똑같은 형태로 변한 것으로 보아 동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한국어에서 형용사의 어휘범주를 동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설명임을 주장한다.

References

- Allan, K. 1973 "Complement Noun Phrases and Prepositional Phrases, Adjectives and Verbs." *Foundations of Language* 10:377-397.
- Bears, J. 1982. *Gaps as Syntactic Features*. IULC. Bloomington, Indiana.
- Bowers, J. S. 1975. "Adjectives and Adverbs in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13: 529-562.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_____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A. Jacobs and P. S. Rosenbaum eds. (1970),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itham, Mass: Ginn and Company.
- _____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S. Anderson and P. Kiparsky, eds. (1973).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Dixon, R. M. W. 1977.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Studies in Language* 1:19-80.
- Emonds, J.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N.Y. Academic Press.
- Hendrick, R. 1978. "The Phrase Structure of Adjectives and Comparatives." *Linguistic Analysis* 3:255-299.
- Householder, F. W. Jr. 1964. *Adjectives before That-Clauses in English*. IULC.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 Huddleston, R.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zdar, G., E. Klein, G. Pullum, and I. Sag . 1985. *The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asil Blackwell.
- Gee, S. P. 1978. "Adjective Preposing and *THERE* Insertion." *Studies in Language* 21:103-111.
- Nanni, D. L. 1980. "On the Syntax of Construction with easy-type Adjectives." *Language* 56:568-581.
- Williams, E. S. 1972. *Small Clauses in English*. Unpublished Paper. MIT. Mass.

- 박병수, 1987. “문술어의 의미해석” 1987. 7. 10. 한국언어학회 초록
- 한재현, 1981. 「생략과 대응현상」,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1983. “한국어 통사범주의 일반화.” 언어 8 권 1 호 : 49-67 서울 : 한국언어학회